

“합평자연생태공원으로 오세요”

희귀 파충류·멸종위기 야생식물 등 다양한 볼거리 전시관람·생태체험...오토캠핑장 '별별캠프' 인기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와 함께 합평자연생태공원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합평자연생태공원에는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 대동제생태공원을 비롯해 오토캠핑장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다. 합평군 대동면 일원에 조성돼 있는 합평자연생태공원은 멸종 위기의 각종 동·

식물을 보존·육성하고 전시 관람과 생태 체험이 가능한 지역 대표 관광지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 대동제생태공원 등 3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공원은 저마다 다른 테마로 조성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국내 최

대 양서·파충류 전문 전시관으로 구렁이, 까치살모사, 킹코브라 등 300여종의 양서파충류를 만나볼 수 있다. 자연생태공원은 '멸종 위기 동식물 보존·육성'을 주제로 56만㎡ 부지에 조성돼 있다. 특히 지난 3월 자연생태과학관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개관하며 AR(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무더위를 식혀줄 바다분수와 울창한 낙우송 길을 따라 수변 관찰데크가 조성돼 있어 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에

게 쉼터를 제공,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동제생태공원에는 최근 캠핑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오토캠핑장인 '별별캠핑'이 위치해 있다. 최고급 사양의 글램핑 5동을 비롯해 키즈카라반, 스파카라반, 가족형카라반 등 20대를 운영하고 있다. 합평군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도시를 벗어나 꽃과 나무, 동물 등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합평자연생태공원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알다브라거북



별별캠핑장

한편, 합평자연생태공원의 하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1시간 단축 운영된다. /합평=김연수기자



합평 안악해변, 여름 수국 만개
합평군 안악해변 '화이트정원'에 싱그러운 여름 수국이 만개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손불면 안악해변 일원에 조성된 화이트정원에서는 수국, 팜파스그라스, 코스모스 등 여름부터 가을까지 형형색색의 꽃을 만날 수 있다. <합평군 제공>

영광군, 생활밀접시설 전문가 합동 점검

국민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도입

영광군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생활밀접시설을 전문가와 합동 점검하는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해 실

시하다 올해는 국민이 점검시설을 직접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도입했다.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8월 17일-10월 1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공공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단, 관리자(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 점검 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16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입력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안전관리과(061-350-5178)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험도, 설치연도 등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신청 주민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을 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신청제를 통해 주민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변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등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광=김동규기자

영광군, 농업인 미디어 촬영·편집 수강생 모집

영광군은 9월 '관내 영상 제작·편집에 관심 있는 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크리에이터 육성과 차세대 영상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업인 미디어 촬영·편집 기초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정보화교육장, 만곡 미디어 제작소)에서 진행된다. 또한 농번기 바쁜 일정을 고려해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며 해당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영상촬영 기획·실습,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영상편집 이론·실습 등의 기초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현재 농업 관련 콘텐츠를 운영 중 또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영광=김동규기자



이상의 합평군수, 국비 확보 총력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등 면담
이상의 합평군수가 군민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 사업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합평군은 9월 '이상의 군수가 최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만나 내년 국가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정부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군수는 ▲내교각각 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436억원)

▲합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314억원) ▲합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280억원) ▲순북·나산 하수관로 정비(117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정비 등 총 6개 사업 1천303억원 중 297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주민 편익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이 군수는 연차적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의 군수는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지속적으로 국회·중앙부처 등을 수시 방문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를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평=김연수기자

합평군, 치매안심마을 확산 공모 선정

사업비 1억5천여만원 투입...돌봄 서비스 활성화

합평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마을 확산 공모'에 선정됐다.

합평군은 9월 "'치매안심마을 확산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5천300만원(국

비 80%, 군비 20%)을 투입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치매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군은 공모를 통해 ▲치매 환자 웰빙라이프 챙기기 ▲청춘은 바로 지금 ▲치매환자·가족 테마여행 ▲문화

예술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관리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평=김연수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고흥군

문의 : 062)650-2099